

'민형배 통합시장 출마'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주목

30일까지 사퇴시 地選때 동시 실시
민주, 전략공천 방침 후보군 속속 거론
강위원·김성진·송영길 물망...野도 재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확정으로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공석이 되면서 후임을 선출하

는 보궐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의원이 6·3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을 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를 같은 날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을 지역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다른 지역 재·보궐선거와 함께 이른바 '미니 총선' 구도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전 지역 공천 방침을 밝히며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 같은 기조 속에 광주 광산에서도 전략공천을 통한 후보 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까지 민주당 안팎에서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송영길 전 대표(가나다 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강위원 부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도전한 데 이어, 2024년 22대 총선에서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등 여러 차례 광주 정치권 진입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광주 광산을 출마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실제 출마 여부와 공천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김성진 원장은 대선당시 이재명 후보 정책 조직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정치인이지만 광주-전남 출신이라는 점과 지역 연고를 강조해 온 이력이 있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최근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김영록 후보의 명예 후원회장을 맡은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략공천 여부와 인물 선택 기준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위원회와의 관계, 지역 기반, 통합특별시장 출범 취지와 연계성 등이 공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철저"

황기연 대행 "대통령 점검·지원 말씀 감사"
행안부·해수부 등 부처 유기적 협력 강조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15일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점검·지원을 언급한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당부하고 완도 화제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2명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 대통령께서 직접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지원을 말씀하신 것에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차질없이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설 공정률과 안전관리, 교통대책 등 인프라 조성과 함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성공적 박람회가 되도록 하자"며 "특히 7월 말까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두 완료하고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본행사가 예정대로 개막되도록 모든 실·국이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2명의 소방 공무원과 관련, 황 권한대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표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인력·장비·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0일 여수에서 개막해 25일까지 열리는 유엔 기후주간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국제행사 만큼 막바지 준비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안전과 홍보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정 기자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15일 오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을 찾아 추모 헌화 및 묵념의 시간을 갖고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대중 道교육감, 통합교육감 출마 선언

생애책임·인재양성 등 4대 비전 제시
"전남광주 대한민국 K-교육특별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5일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
김 예비후보는 "학생생애 책임교육으로 새로운 100년 교육을 설계하고, 글로벌 미래교육으로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K-교육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에 앞장서 온 김 예비후보는 "통합특별법에 담긴 교육자치의 확장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재양성과 교육자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교육 비전으로 ▲민주주의 교육 특별시 ▲학생생애 책임 교육 특별시 ▲인재양성 교육 특별시 ▲평생문화 교육 특별시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민주주의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민주시민성에 두고, 호남 정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교육의 중심축을 세울 것이라는 구상이다. /박선욱 기자



"학생생애 책임교육"은 기존의 학력 중심·단편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와 교육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인재양성은 교육과 미래전략산업을 연결해 지역 인재 키우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는 "AI·에너지 교육벨리를 조성하고 초·중·고·대학을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 전남광주특별시를 500만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선욱 기자

강기정 시장, 25일 만에 업무 복귀

행정통합 준비 등 현안 마무리 최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출마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업무에 복귀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5일 만에 시장직에 복귀한다"며 "전남·광주를 돌아보면서 통합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우리의 통합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겠다는 믿음을 더 크게 갖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저의 빈자리를 잘 메워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전쟁의 여파로 더욱 힘들어진 기업과 일상을 지켜내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시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올해

1월2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하며 실질적인 통합 추진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재편된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구도 속에서 강 시장은 재선 도전을 위해 시장 직무를 정리하고 당내 경선에 참여했으나 신정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 사퇴했다.
단일화 상태였던 신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강 시장은 결선 국면에서 김영록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직 복귀를 미뤘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시장 마무리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복귀 첫 날인 이날 역시 별도 외부 일정 없이 업무보고를 받으며 시장 현안을 점검하는데 집중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남은 임기 동안 행정통합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